불교문화재연구소

'전남·충북 지역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쾌거

3월 11일, 사찰문화재 등 18건 보물 지정

전국 방방곡곡의 사찰을 다니며 알려져 있지 않던 유물을 찾아 역사적 · 학술적 의미를 부여하고 불교문화재로 재탄생시키는 사람들.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범하, 이하 연구소) 산하 유적조사팀과 문화재조사팀 30여명이 그 주인공이다.

이 연구소는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연 8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국사찰 소장 문화재를 실사중이다. 연구소는 2002년 강원, 2003년 전북, 2004년 대전 · 충남지역을 실사했다. 그 중 2005년 전남 · 충북지역 실사 후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유물들 15점이 3월 11일 보물로 지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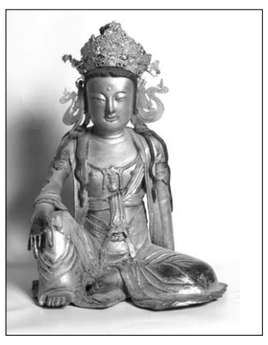
홍병화 팀장(문화재조사팀)은 "2002~2004년까지의 조사 후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는 통계자료가 없다. 이번 15점의 보물 지정부터 일제조사와 문화재 승격 및 지정을 연관시키기로 했다"고 말해 2005년 이전 작업에서도 많은 불교문화재가 발굴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음을 시사했다. 홍 팀장은 "일제조사는 전국사찰 소장 문화재의 실사 성격이 짙다. 문화재 선정은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한 교계 인사는 "정확한 통계는 없어도 일제조사 결과 보물지정이 이어지고 있음은 틀림없다"면서 이는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극찬한다.

연구소는 2006년 경북 남부, 2007년 경북 북부 지역 실사에 이어 2008년에는 해인사, 쌍계사를 중심으로한 경남 서부 지역을, 2009년에는 통도사, 범어사 중심의 경남 동부 지역을,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서울 · 경기 남부와 북부지역을 실사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이 "앞으로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에서 발견되는 중요 문화재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일제조사에 교계의 기대가 크다.

보물 제1552호 해남 대흥사 영산회 괘불탱.

보물 제1555호 담양 용흥사 순치 원년명동종.



보물 제1547호 해남 대흥사 금동 관음보살좌상.

> "수준 높고 단아한 멋 있는 조각 작품들
> 회화 우리나라 유일 33사 조사도 포함
> 보존상태 좋고 예술성 뛰어난 동종"

보물 지정된 15건은 무엇?

'나주 심향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고려후기, 보물 제1544호)'은 현재까지 알려진 건칠불(乾漆佛)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속해 고려후기 불교조각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나주 불회사 건칠비로자나불좌상(고려말~조선초, 보물 제1545호)'도 심향사 아미타여래좌상과 같은 지역에서 발견 · 조성된 건칠불로 건칠기법의 전승과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예로 평가된다. '구례 천은사 금동불감(14세기, 보물 제1546호)'은 조형적으로 우수해 여말선초 불교조각 · 건축 · 공예 · 회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수준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이외에도 단아한 멋이 일품인 '해남 대흥사 금동관음보살좌상(조선전기, 보물 제1547호)', 삼신불 도상이 특이한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1636년, 보물 제1548호)', 17세기 전라도 지역의 독특한 양식을 보여주는 '순천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16나한상 일괄(1624년, 보물 제1549호)'과 '여수 흥국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1628~1644년, 보물 제1550호)' 등 7점의 불교조각이 보물로 지정됐다.

불교 회화로는 17세기 영산회상도 양식을 보여주는 '진천 영수사 영산회 괘불탱(1653년, 보물 제1551호)', 조선후기 대표적인 화승 색민(色旻)의 '해남 대흥사 영산회 괘불탱(1764년, 보물 제1552호)', 색민의 스승 의겸(儀謙)의 '순천 선암사 서부도암 감로왕도(1736년, 보물 제1553호)',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33사 조사도인 '순천 선암사 33조사도(1753년, 보물 제1554호)' 등 4점이 지정됐다.

김용암(金龍岩)이 주성한 '담양 용흥사 순치 원년명 동종(1644년, 보물 제1555호)', 김애립(金愛立) 등이 주성한 '여수 흥국사 강희 4년명 동종(1665년, 보물 제1556호)' 및 '고흥 능가사 강희 37년명 동종(1698년, 보물 제1557호)'과 김상립(金尙立) 일가가 제작한 '순천 선암사 강희 39년명 동종(1700년, 보물 제1558호)' 등도 지정됐다. 이들 동종은 조선시대의 대표장인이 제작한 종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예술성이 뛰어나며 연기가 분명해 공예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학계의 평이다.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등 3건도 보물지정 돼

한편 문화재청은 3월 11일, 관방지도의 백미로 일컬어지는 규장각 소장 '요계관방지도'와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 제9~10, <묘법연화경> 권 제1~2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불교학연구' 제18호 발간

2007년 '불교학과 인접학문의 소통' 주제 학술 논문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가 발간하는 학술지 <불교학연구> 제18호가 발간됐다. 이번 학술지에는 2007년 '불교학과 인접학문의 소통'을 주제로 열렸던 추계학술발표회 논문 4편과 투고논문 8편 등 총 12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게재논문> 김형효 명예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전환기의 철학과 불교사상', 윤원철 교수(서울대) '불교학과 종교학', 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 '한국불교와 현대적 사회제도의 만남', 우희종 교수(서울대) '복잡계 이론으로 본 생명과 깨달음의 구조', 황금순(홍익대 대학원 석사)씨 '낙산설화와 고려수월관음도, 보타산 관음도량', 정병삼 교수(숙명여대) '몽산 저술의 간행과 16세기 조선불교', 김종명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 일상예불의 역사적 변용', 정암 스님(동국대 강사) '4남 8자의 순서에 관한 고찰', 이봉순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 '<대일경>의 보살사상', 정진일 연구원(독일 괫팅겐불교산스크리트사전 편찬소) '구나발타라역 <잡아함경>에 보이는 번역상의 문제점', 김양순(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씨 '<무량수경연의술문찬>의 사십팔원', 이혜숙 겸임교수(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종교와 영성의 문제' 등. (게재순)

조동섭 기자

원효 무애춤 '깨달음의 사회화' 방편

도각 스님, '예술심리치료연구' 제3권 발표

무애춤 공연중인 도각 스님.

소성거사(小姓居士)라는 이름으로 세속의 옷을 입고 무애라는 표주박을 두드리며, 무애가를 부르고, 무애춤을 췄던 인물, 첫 새벽을 뜻하는 이름만큼 한국불교 및 세계철학사상사에 새벽을 연 큰 별 원효 대사의 무애춤을 학술적으로 고찰한 논문이 있어 눈길을 끈다.

'원효무애춤, 동작명상치료의 현재적 연구'를 발표한 이는 도각 스님(원효무애춤명상보존회 회장)이다.

도각 스님은 "의상 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향하던 원효 대사가 해골에 고인 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은 희열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 것이 무애춤의 태동"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원효 대사의 춤에는 일심사상과 화쟁사상, 무애사상이 녹아있다고 분석했다. 도각 스님은 일심을 체(体)로, 화쟁을 상(相)으로, 무애를 용(用)으로 나누고, '무애선' '무애차' '무애춤'의 삼무애로 원효의 사상과 명상수행 정리한 스님은 "무애춤이 통합의 학을 위한 표현예술심리치료 분야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우리 학회는 | (10)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www.keastwest.or.kr

연기 중심으로 한 동서양 문학 사상의 비교연구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회장 한일동, 이하 학회)는 1997년 7월 창립됐다. 동서양의 문학과 사상의 비교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회다. 영문학을 비롯한 서양문학, 철학, 종교학, 국문학, 중문학, 일문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전공자들 300여명이 모여 동양의 연기를 서양간의 관계로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 2회 발간되는 학회지 <동서비교문학저널>은 2003년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로 선정됐다. 논문 게재는 동양사상과 동양의 작품을 서양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결과물을 중심으로 순수 동양사상에 관한 연구결과물도 게재한다. 정기학술발표회는 춘계와 추계 연 2회 개최한다.

2001년 전재성 박사(빠알리성전협회)가 '초기불교의 연기사상'을 발표하는 등 다수의 학자들이 불교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2008년 춘계 학술대회는 5월 31일 세종대학교에서 개최예정이며, 4월 30일까지 논문원고를 접수받는다. bkwon88@hanmail.net

조동섭 기자

바로 잡습니다. 제 670호 '우리 학회는'中 <가산불교대사림> 제10권은 2008년 상반기 중 발간예정입니다.

불교문예 펴냄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 3동 328번지 02)308-9520

펴낸곳 | 불교문예
집역인 | 로담스님
A5 / 253쪽 / 값12,000원

신라 스님들의 시는 있는데...
백제 고구려 스님들의 시는 왜 전하지 않는 걸까?

승려신인 로담 스님이 발품을 팔아 정리한
우리 고대사에 빛나는 깨달음의 노래들!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입 종 안 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십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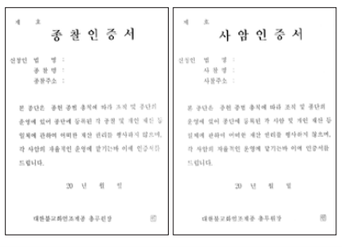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碍)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문 의 : 총무원 054)632-2799
창종주 011-228-7813

※종단입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종주 혜상스님께 문의 바랍니다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1조.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전통범음범패(바라작법)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범패교육원에서 2008학년도 2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 · 범패 · 작법(바라춤,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재가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과정(1년)
◆초급과정
도량석, 종송,각단예불, 삼보통청, 각단불공 등
◆중급과정
49재 의식 및 천도의식,지장청,시왕도청,상용영반, 관음시식,화엄시식,전시식
◆고급과정
천수바라,사다라니,화의재바라,오공향,유원승,요잡작업, 종사이운,종사영반,점안의식,시다림,예수재 등

2.수 업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3.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강의장소 : 경북교구종무원 설법전
6.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종무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1매
7.접 수 처 :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전화접수가능,상시모집)
8.연 락 처 : 053)857-4339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간 2리 265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교육원

선상용왕재 및
고혼천도 수륙대재

대한불교 조동종에서 수륙재 및 중국 보상사 부처님 불치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합니다.
스님들뿐만아니라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을바랍니다.

◈여 행 지 : 석도 – 연태 – 제남 – 태산 – 곡부 – 문상 – 유방
◈출발일자 : 불기 2552년 3월 24일(음 2월 17일) 월요일 ~ 3월 29일(토요일) 까지
◈출발시간 및 장소 : 인천 제 2여객터미널 로비집결 오후 3시
◈주 최 :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
◈동 참 금 : 1인당 60만원 (영가천도 한분당 1만원)

(주) 풍 경 여 행 사
문의 02)2091-0408 / Fax 02)951-0480